

200-4-056. 고려청년회 만주총국 동만도 간부회원 검거전말

■ 1928년 9월 間島總領事館이 京城地方法院 檢事局에 보고한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 동만도 간부회원 검거전말 조사사건을 수록

1. 事件真相

1923년 고려공산청년회 간도총국이 창설되고 1925년부터 사업을 시작, 만주총국이 성립되었다. 이것을 다시 동만도 간부로 개칭하였으나, 1927년 10월 용정에 서 28명이 검거되고, 1928년 5월 용정에서 북풍과 공산당 일파 8명이 검거됨으로써 그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사상단체들의 표면운동은 점차로 치열해졌다. 그들 단체들의 계통과 간부는 다음과 같다.

國際共產青年會-高麗共產青年會 中央幹部-滿洲總局-東滿道 幹部-地方細胞 59(회원 230명) / 責任秘書: 李正萬, 組織部長: 金世俊, 宣傳部長: 林允基 / 朝鮮共產黨 東滿區域局 責任秘書: 李基錫(變名: 姜晚熙, 萬熙, 朴春山) / 모폴 東滿道 幹部組織 責任: 金振譯, 組織部長: 李基錫親, 宣傳部長: 金河昌 당시 검거된 인원은 72명(공산청년회원, 공산당원 51명, 기타 21명)이다. 명단은 0640~0079쪽을 참조

이들은, 식민지 해방운동과 무산계급의 민중운동이 협동전선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 보급과 민족적 단결을 촉진함으로써 이들을 전위부대 또는 예비부대로 하여 조선민족을 일본통치로부터 해방, 이탈케 하고 새로운 공산국가를 창설하려고 먼저 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이들의 表面團體는 <東滿朝鮮青年總同盟이고, 裏面團體는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 동만도 간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구역국 모폴 동만도 간부 등이다.

2. 表面運動

在東滿朝鮮青年總同盟은 1926년 1월 間島 龍井에서 조직된 東滿青年總聯盟의 후신으로서, 당시 참가단체는 東震青年會 외 19단체, 참가 대의원수는 金武 외 27명이었다. 이후 1928년 1월 11일 용정에서 제1회 定期大會를 개최하고, 12일 聯盟의 조직체를 中央集權의인 同盟조직체로 개편하여 在東滿朝鮮青年總同盟이 탄생하였다. 1928년 1월 15일 總同盟 제1회 中央執行委員會가 개최되어 組織方針, 鬭爭方針, 教育訓練方針이 결정되었다. 同 總同盟의 重要한 部門運動 대상은 민족문제, 노동문제, 여성문제, 학생문제, 소년문제, 교육기관 문제, 교육자동맹 문제, 組合(共利社)문제 등이다. 思想宣傳활동으로 신문·잡지인 『現段階』, 『青年朝鮮』, 『朝鮮運動』, 『新興科學 無產者新聞』, 『民衆』 등을 통하여 思想敎養에 힘썼다. 또한 조직에 대한 熟語를 統一시키고, 高麗革命歌, 勇進歌, 不合理歌, 革命歌 등의 선전가요, ‘春三作이므로(무산자의 승리)’등 創作을 통하여 사상 교양에 힘썼다. 아울러 입회수속을 비롯하여 加盟節次, 維持經費 등 경영 전반에 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3. 裏面行動

고려공산청년회 동만도 간부 계획 및 지령에 의하면, 조직문제를 비롯하여 교양문제, 정책문제, 민족문제, 鄉社운동, 연맹개조 문제, 각 과별주의 대두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단체운전에 대한 공산청년회의 강령 및 준비, 공청 중앙간부의 지령도 언급되고 있다. 1928년 7월 31일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에 李基錫, 委員에 朴淳·金振譯·崔宗學·李正萬이 임명되었다. 모폴 동만도 간부조직 책임자는 金鎮澤, 조직부 책임자는 李基錫, 선전부책임자는 金河晶이고, 회원은146명이다.

4. 其他情況



本件 檢거 이후 各地의 사상단체는 일제히 침묵